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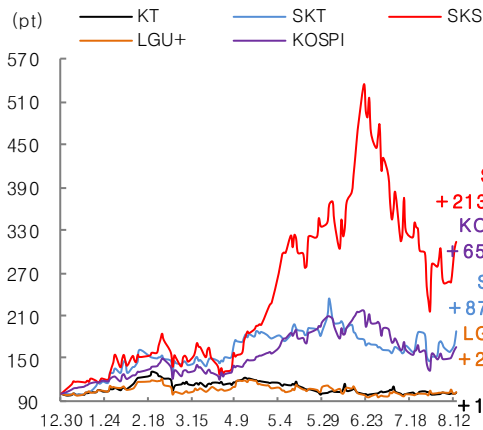
1. 주가 현황

기업	25/12/30	08/07	08/14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88,200	100,500	▲47,000	▲87.9%	▲12,300	▲13.9%	3,160	3.1	
SK스퀘어 (402340)	368,000	939,000	1,154,000	▲786,000	▲213.6%	▲215,000	▲22.9%			
KT (030200)	52,600	53,300	53,400	▲800	▲1.5%	▲100	▲0.2%	2,700	5.1	
LGU+ (032640)	14,720	14,960	15,060	▲340	▲2.3%	▲100	▲0.7%	700	4.6	
KOSPI	4,214.2	6,258.8	6,977.9	▲2,763.8	▲65.6%	▲719.2	▲11.5%			

- 주가 코멘트: 통신도, 지수도 다 같이 오르면 좋죠!**
- 통신 주간 +6.9%, KOSPI +11.5%. YTD 통신 +33.0%, 지수 +65.6%. 지수가 오랜 만에 시원한 반등을 보였고, 통신은 지수대비로는 언더퍼폼
 - 6/22 이후 지수의 급락 기간 동안 통신은 지수 하락시 방어와 지수 상승시 동반 상승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번 주도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에 통신도 동반 상승. 안정적인 실적과 밸류에이션 및 높은 주주환원 매력에 상승 동력
 - 주간 SKT가 큰 폭으로 상승. 연초부터 반도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번 주 반도체 반등이 SKT의 상승 동력. 한편, 가을로 예상하는 Anthropic IPO 이후 밸류가 \$2tn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 것이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
 - KT는 CEO 코멘트를 통해 25년 대비 28년 AX 매출을 두 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AX 전환 관련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 집중
 - 투자 시점별 매력도: 8월 2Q 호실적과 자사주 900억원 관련한 LGU+, 10월 Anthropic 상장 모멘텀 관련 SKT, 중장기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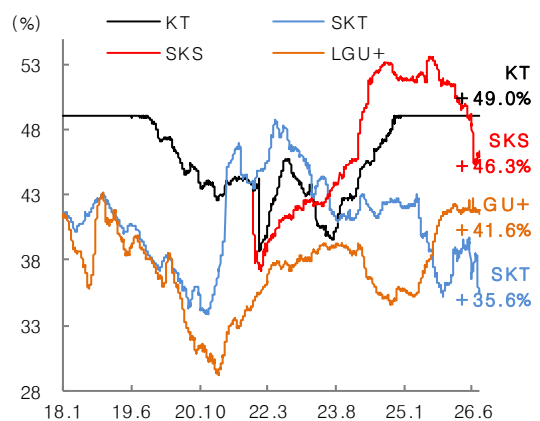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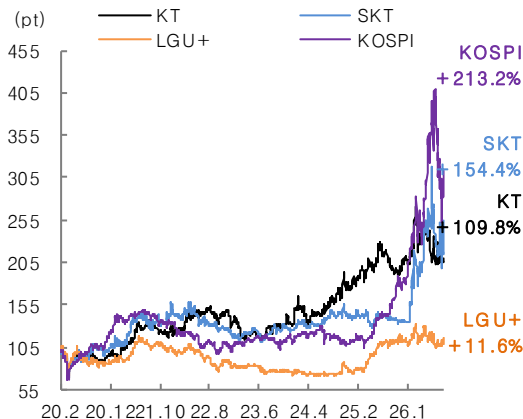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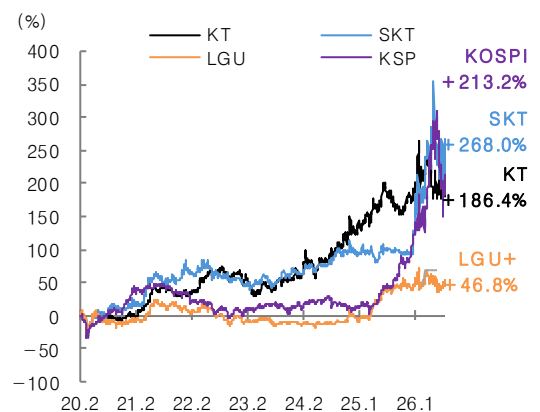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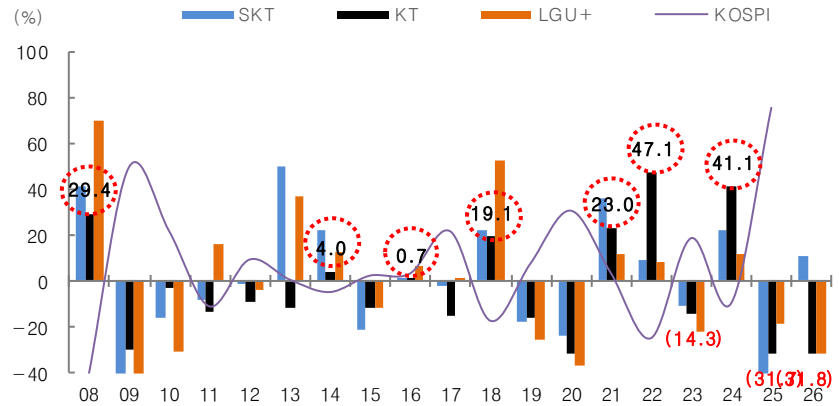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87.9%(+13.4%), KT +1.5%(-38.7%), LGU+ +2.3%(-38.2%)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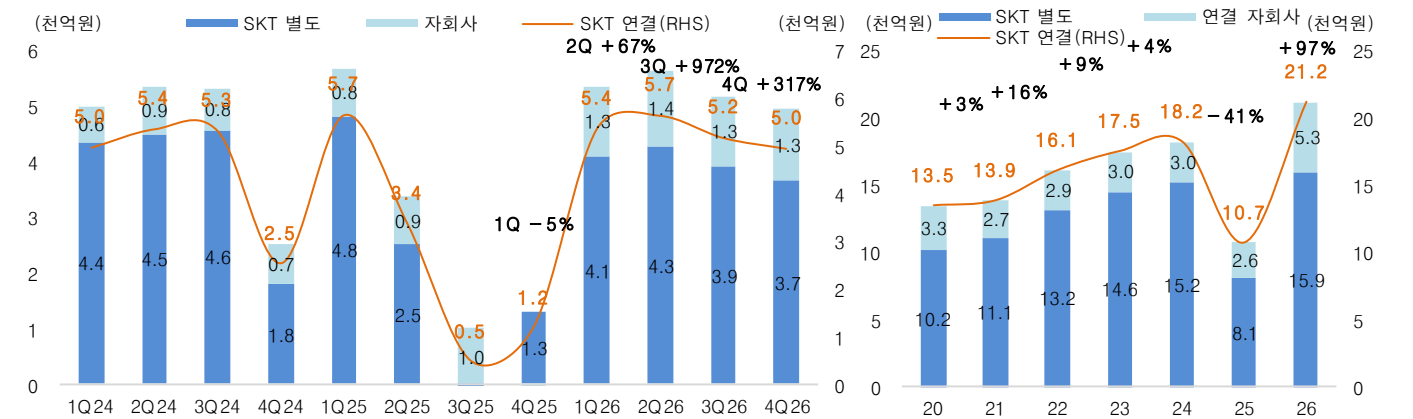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87.9	1.5	2.3	65.6	13.4	(38.7)	(38.2)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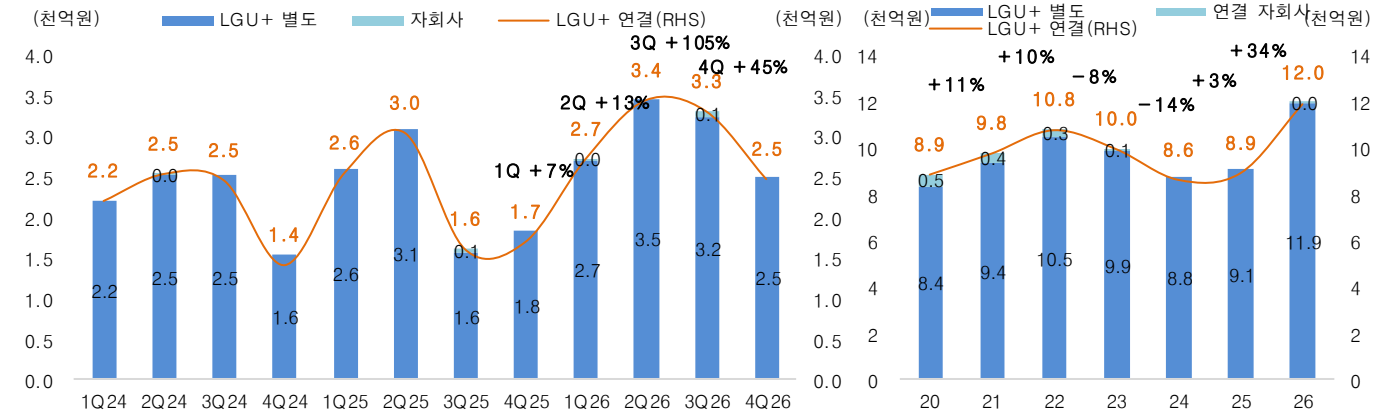
3. 2Q26 Review

SKT OP 2Q26 5.7천억원(+67% yoy), 26E 2.1조원(+97%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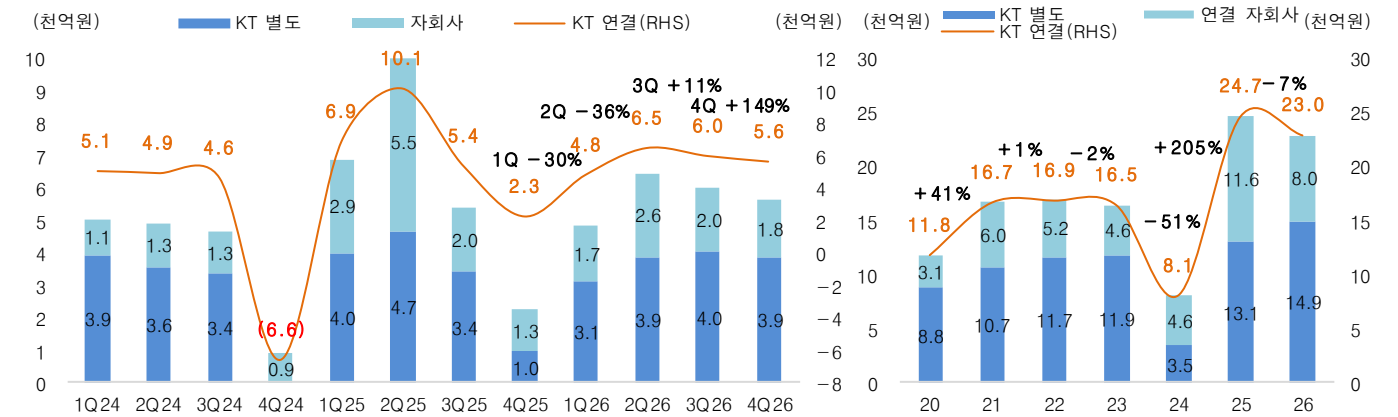
자료: LGU+, 주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U+ OP 2Q26 3.4천억원(+13% yoy), 26E 1.2조원(+34% yoy) 전망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OP 2Q26 6.5천억원(-36% yoy), 26E 2.3조원(-7% yoy) 전망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SK하이퍼 인선, LGU+ 공공 클라우드 본격화, AI구독 결합 요금제, AXK2 경량화 모델,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SKT

SK하이퍼 인선

1. SKT AIDC 사업개발 자회사 SK하이퍼가 CEO를 포함한 4명의 C레벨 인선을 확정하며 초기 경영체제 구축. 부지·전력 확보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전략·기술·재무 중심의 리더십 구성
2. 정석근 대표는 SKT AI CIC장과 AIDC 통합추진단장을 겸임하며 그룹 내 AIDC 실행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 담당. CSO에는 조정민 SKB DC사업담당, CTO에는 이동기 DC솔루션담당을 배치해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 경험 활용
3. 조정민 CSO는 AIDC 기획과 커넥트인프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SK하이퍼와 SKB 간 사업 조율을 담당할 전망. 이동기 CTO는 SKB AIDC 랩장과 클라우드 테크담당을 거친 B2B 기술 전문가로 데이터센터 기술 전반 총괄
4. CFO에는 신사업 투자와 M&A 경험을 갖춘 유재호 고문을 선임하며 단순 재무관리보다 외부 투자 유치와 자금조달 구조 설계에 무게. SKT 포트폴리오 전략실과 11번가 사업기획 경험을 활용해 대규모 AIDC 투자에 필요한 외부 자본 확보 추진
5. SKT의 SK하이퍼 출자 한도는 30년까지 7,500억원이며 설립 자본금은 3,300억원으로 중장기 구축 목표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자체 재원. 29년 5GW와 35년 이후 15GW 규모 구축에는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한 만큼 PF와 외부 투자자 활용이 핵심 과제
6. SKT는 C레벨 인사와 함께 AIDC본부·경영기획·회계 등 실무 인력을 SK하이퍼 경무로 배치해 초기 사업 실행 기반 마련. 별도 대규모 채용보다 검증된 내부 인력을 우선 활용하며 부지·전력 확보와 고객 유치, 투자 유치의 조기 착수에 초점

긍정적

- SKT는 가장 큰 규모의 AIDC 계획을 발표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가는 중
- 다만, 목표로 하는 AIDC 규모 대비 출자금 규모는 제한적이어서, 투자가 확대될지, BM은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LGU+

LGU+ 공공 클라우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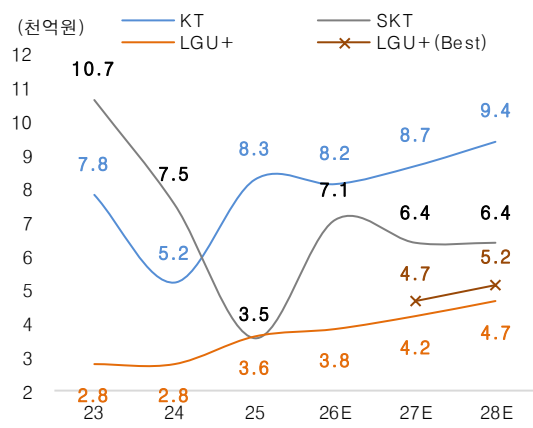
1. LGU+가 AWS IaaS 중개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며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 본격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 LGU+의 AWS 클라우드 인프라 중개 서비스를 직접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는 구조
2. 이번 등록은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로 공공기관의 AWS 도입 과정에서 LGU+가 중개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확보.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와 자체 네트워크·보안 운영 역량을 결합해 공공 부문 고객 접점 확대
3. LGU+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자체 기존에 맞춰 AWS 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 전반을 지원할 계획. 생성형 AI 기반 민원·업무지원 챗봇과 정보검색 서비스, 통계·행정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주요 활용 영역
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초기에는 자체 N/W와 보안·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기관별 요구에 맞는 최적 인프라 구성 방안 제시.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자원 효율화를 지원하며 단순 클라우드 중개를 넘어 관리 서비스까지 사업 범위 확장
5. LGU+는 기존 통신 인프라 운영 경험에 AX와 AICC 등 AI 서비스 개발·운영 역량을 결합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 추진. 기관별 보안 요구사항과 업무 환경에 맞춘 운영 체계를 제공하면서 공공 AX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전략

6. 이번 서비스 등록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 인프라 중개와 통신·보안·AI 역량을 묶은 통합 사업 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 성격. 클라우드 구축부터 운영·효율화와 AI 서비스 적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 부문의 AI 수요를 흡수하려는 사업 방향

공정적	- AI 산업이 그 동안 반도체 및 AIDC와 LLM 중심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프라는 어느 정도 규격이 갖춰져있고 타임라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서비스의 경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산업	
AI구독 결합 요금제	-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되면서 SKT·KT·LGU+가 구글 AI 서비스를 통신요금과 결합한 신규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 본격화. 기존 데이터·OTT 중심의 요금제 혜택에 AI 구독을 추가해 이용자 수요를 흡수하고 고가 요금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 SKT는 월 11만9,000원 ~ 12만9,000원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구글 AI 플러스와 400GB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결합하고 일부 상품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까지 포함. 문서 작성과 검색·번역·학습 등 생성형 AI 기능과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결합형 상품 확대 - KT는 월 9만~13만원대 초이스 요금제에 구글 AI 플러스와 400GB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결합하고 일부 상품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까지 포함. 문서 작성과 검색·번역·학습 등 생성형 AI 기능과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결합형 상품 확대 - LGU+는 월 9만5,000~13만원의 플러스플랜 4종에 구글 AI 프로를 기본 제공하며 2TB 스토리지와 제미나이·나노 바나나·딥 리서치·노트북LM 등 지원. 동영상 제작과 리서치까지 포함한 다양한 AI 기능을 앞세워 프리미엄 요금제의 서비스 범위 확장 - AI 유료 서비스 이용률은 24년 14%에서 지난해 19.5%로 상승하며 통신사·가·AI를 신규 요금제 핵심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 확대. 통신 3사는 자체 AI만으로 경쟁하기보다 이용자 인지도가 높은 구글 AI를 통신·OTT 상품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장 대응 - 오는 10월부터 통신사가 OTT·결합할인·위약금 등을 반영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제도 시행 예정. AI와 OTT 등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결합한 고가 요금제의 체감 혜택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유지와 점유율 경쟁을 병행하는 구조
공정적	5G CAPEX에 대한 초기 감가상각이 마무리되면서 전반적으로 감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시점 - OTT와 AI 구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마진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SKT	
AXK2 경량화 모델	- SKT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XK2의 실제 기업·기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메모리 절감과 추론 가속, 단일 장비 구동을 지원하는 최적화 기술 공개. 모델 개방뿐 아니라 비용·속도·장비 부담까지 낮춰 이용 환경별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 - AXK2 NVFP4는 6,880억개 매개변수와 MoE 구조를 유지하면서 숫자 정밀도를 낮추는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 최소 필요 메모리를 약 646GB에서 370GB로 축소. 원본 대비 메모리 요구량 약 43% 절감과 엔비디아 B200 GPU 4개 서버 구동 가능 수준 - 양자화 이후에도 복잡한 문제를 검토하는 싱킹 모드와 빠른 응답을 위한 년싱킹 모드, 최대 256K 토큰의 장문 처리와 외부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에이전트 기능 지원. 특정 장문 검색 평가에서는 양자화 전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지만 전체 업무의 품질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 범위 - 추론 가속 기술 EAGLE3는 약 30억개 매개변수의 소형 모델이 다음 단어를 먼저 제안하면 AXK2가 이를 한꺼번에 검증하는 구조. DSpark는 여러 위치의 단어 후보를 병렬 예측한 뒤 관계를 확인하고 본 모델이 최종 검증하는 별도 가속 방식 - 추가 공개 예정인 AXK2 GGUF는 약 345GiB 규모로 충분한 시스템 메모리를 갖춘 고사양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 한 대에서 모델 실행을 지원하는 형식. 대규모 GPU 클러스터 없이 시험·제한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반 PC나 노트북 구동은 어려운 사항 - NVFP4는 메모리 절감, EAGLE3와 DSpark는 응답 속도 개선, GGUF는 실행 장비 선택 확대에 각각 초점을 둔 운영 최적화 체계. 관련 모델은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공개돼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자체 서비스 적용과 산업별 추가 학습에 활용 가능한 기반
공정적	SKT가 LLM을 만드는 이유는, AI 산업의 초기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님. 글로벌 LLM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되, 자체 LLM을 통해 소비된 AI에 대한 수요를 준비하겠다는 투트랙 전략
산업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13일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하고 제도 개편 작업 착수. 과도한 재할당 비용이 통신사의 6G·AI 투자 여력을 낮출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주요 배경 - 현행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산정·부과되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통신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추진. 업계에서는 산정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대가 수준의 합리성도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 -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할당 대가 체계 검토. 통신사의 투자 부담과 국가 주파수 자원의 적정 가치 사이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연구반은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구조. 특정 산정 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 환경 변화까지 함께 반영 - 주요 검토 대상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 해외 주요국의 재할당 제도 및 대가 산정 동향.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행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개선안 마련 - 이번 연구반 출범으로 향후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6G와 AI 등 차세대 통신 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도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 반영을 핵심 원칙으로 한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 개편 작업 본격화
공정적	주파수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N/W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CAPEX 투자 규모와 요금제 등 많은 요소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의 주파수 할당 대가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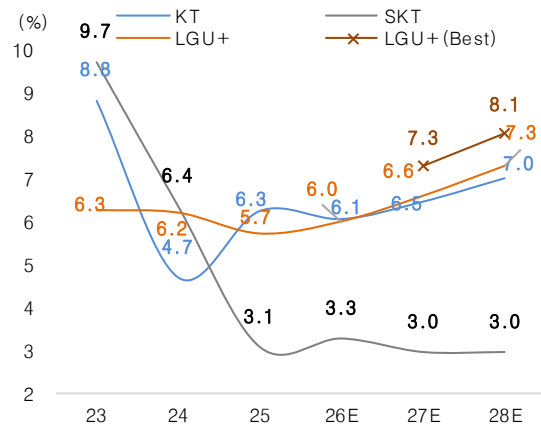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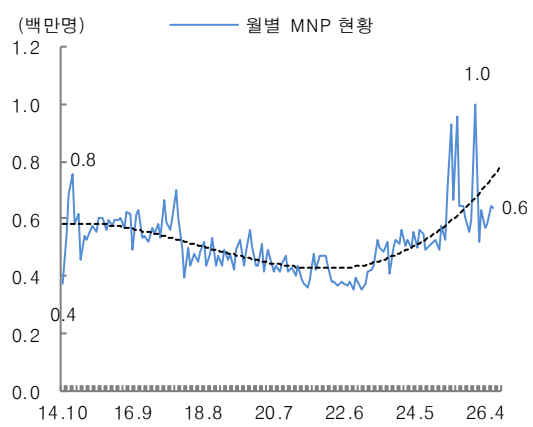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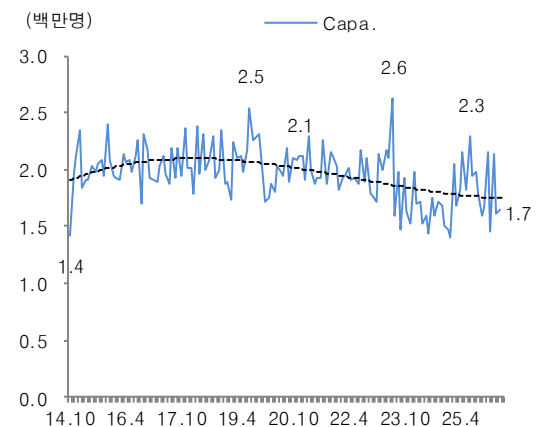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7월) 64만명, -0.7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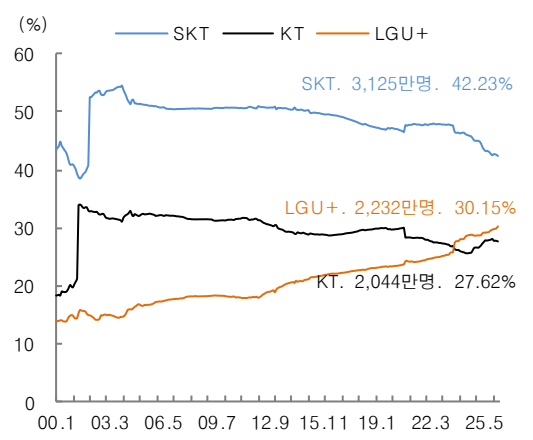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5만명(26.5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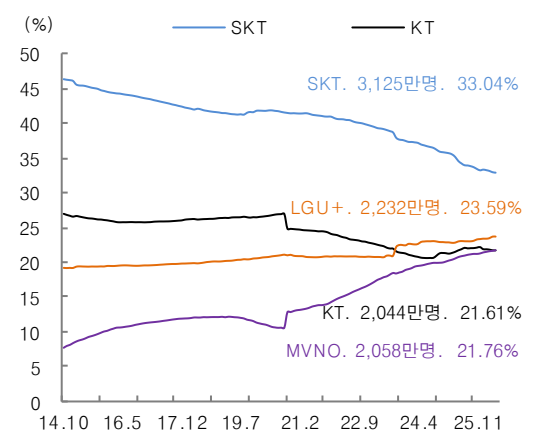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5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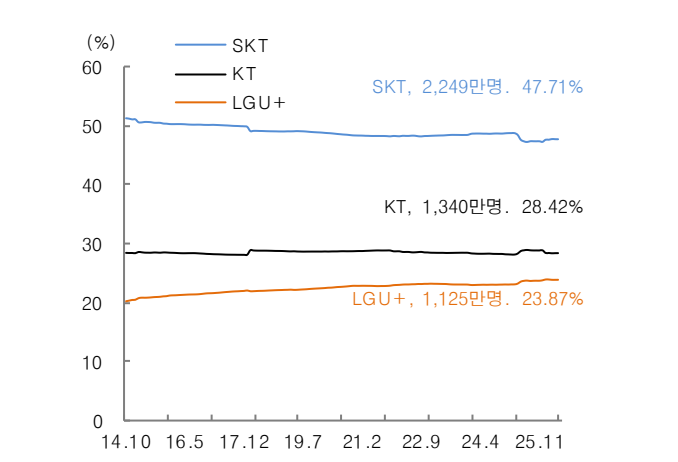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5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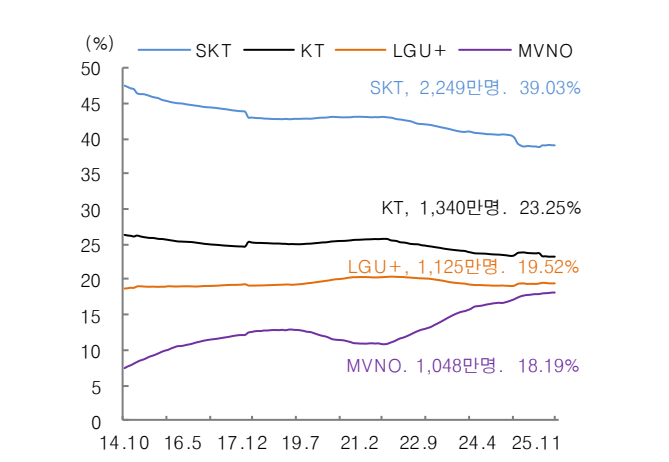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5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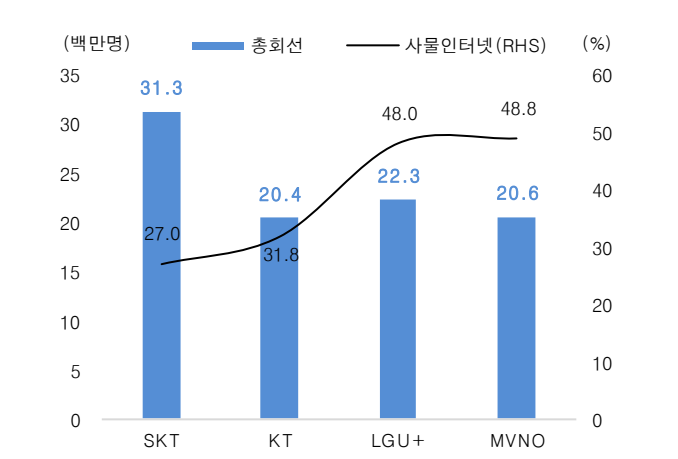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5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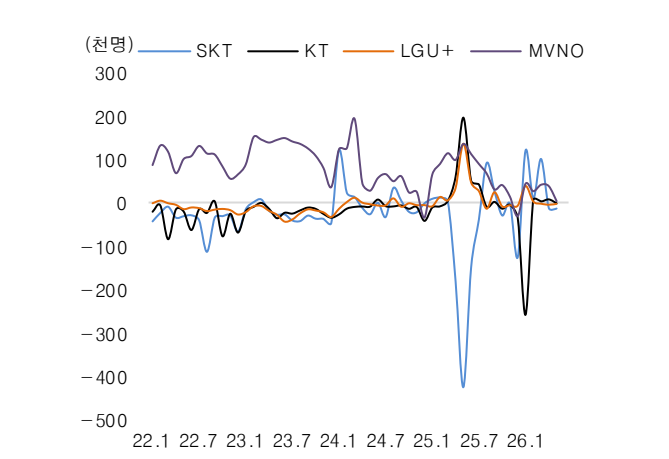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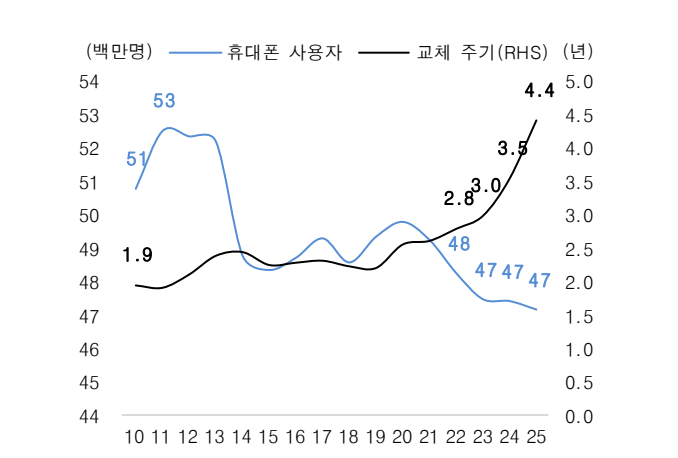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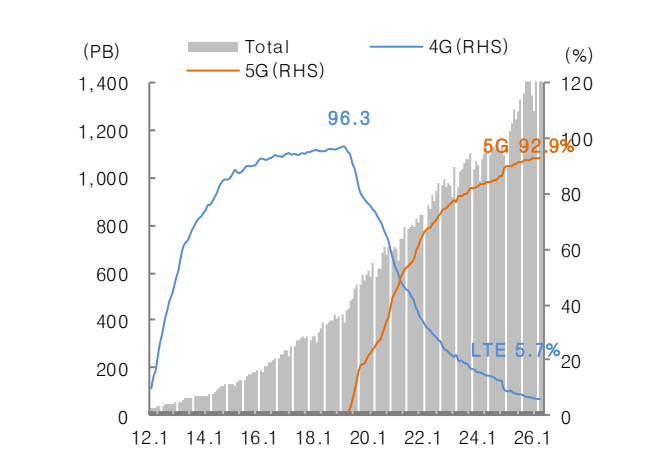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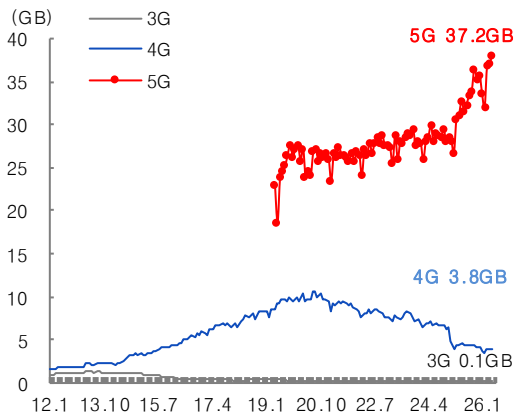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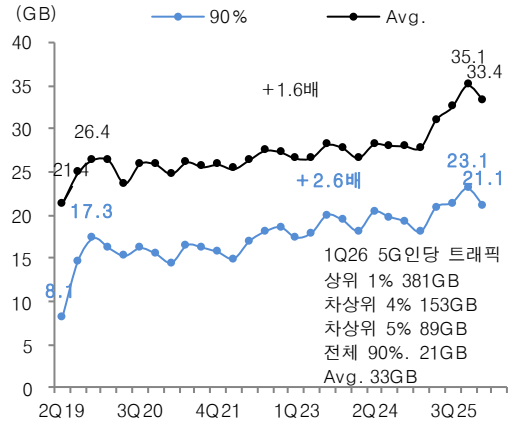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7.2GB(26.5월), +1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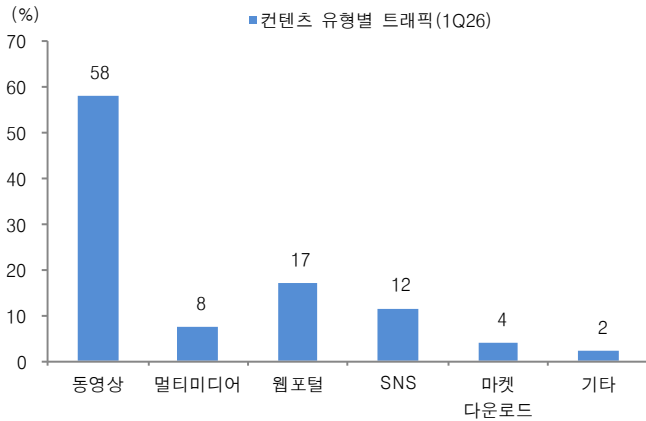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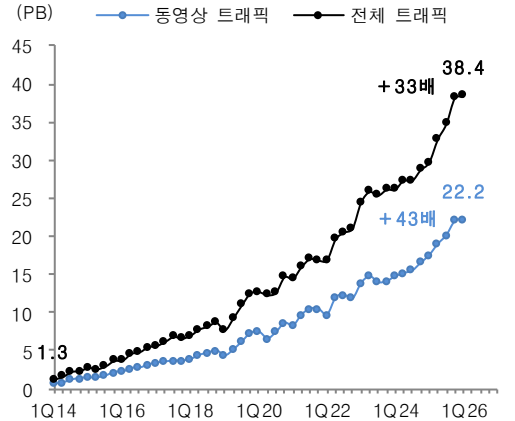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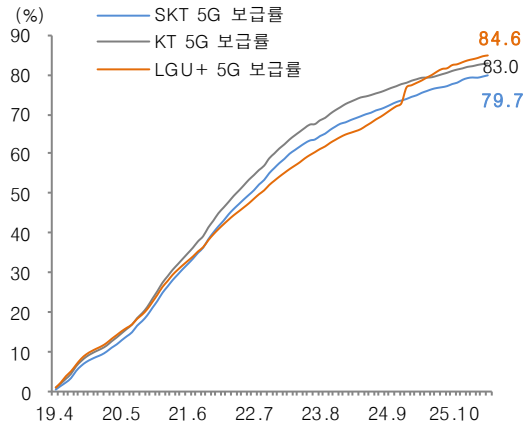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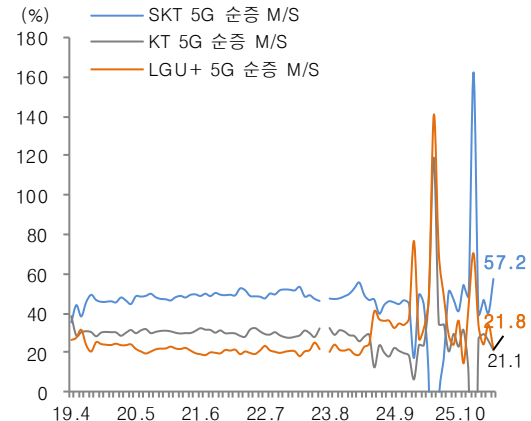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9%(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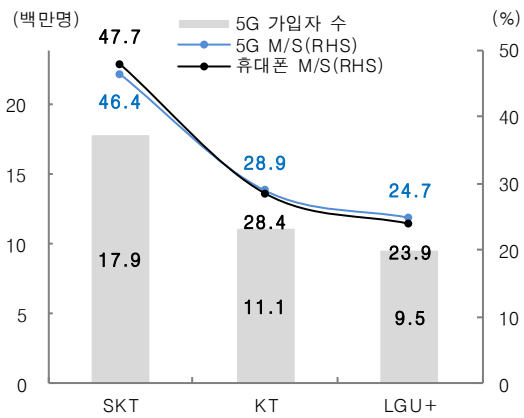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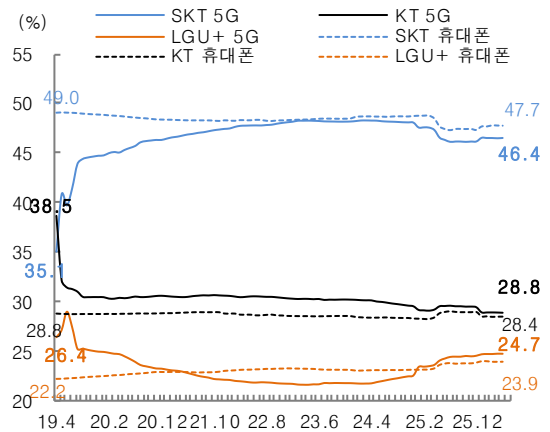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 (26.5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 (26.5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